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전화: 723-5300 / 팩스: 723-5055
 천안한하호텔:PSPD,나우라유-탈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m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金炯完 : 723-5302)
 제 목 청와대치안비서관의 편법부동산매입에 대한 성명
 날 짜 1998. 4. 29. (총 1 쪽)

보 도 자 료

“저축개념으로 은행보다 땅이 낫다”? 청와대 치안비서관의 공직자의식 문제 있다

1998. 4. 29.(수)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최근 윤웅섭 청와대 치안비서관이 농지개혁법에 의해 외지인 소유가 엄격히 금지된 농지를 부인명의로 편법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윤비서관의 부인은 1천 4백여평의 경기도 여주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매매 서류를 조작하는 등 편법,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비서관이 한 번도 땅을 되판 적이 없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나 심지어 “저축개념으로 은행보다 땅이 낫다”고 말한 것은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바로 그러한 동기가 망국병이라 불리우는 오늘의 부동산투기를 불러왔다는 점을 상기할 때 과연 부동산매입의 목적과 방법이 정당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누차에 걸쳐 새정부의 고위공직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결이 있는 인사가 등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의혹과 관련하여 특정 장관과 청와대비서관이 계속 물의를 빚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의 시각으로는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 새정부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단 한치의 의혹이나 불미스러운 점도 없는 인사를 준용하는 것이야 말로 새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끝.

공동대표 김종배·김창국·박상증